

아동에 대한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Effect of the Maternal Variables on the Verbal Abuse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최 정 미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 교수 우 희 정

Dept. of Social Welfare, Chodang Univ.
Concurrent Prof. : Choi, Jung Mi
Division. of Social Welfare, Kwangju Univ.
Asso. Prof. : Woo, Hee Jung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고찰 | V. 논 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lineate the effect of maternal variables of the verbal abuse. Such variables as the mother's age, her education level, and maternal parenting stress have been chosen for the analysis. The sample subject were 659 pairs of fifth/six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and first/second grade of middle school, and their mothers. The major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looking 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other's age/education level and the verbal abuse, the verbal abuse factor shows difference correlating to the mother's age/education level. Second, looking 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aternal parenting stress level and the verbal abuse, the verbal abuse factor shows difference correlating to the maternal parenting stress level. Third,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s of the maternal variables to the verbal abuse indicates that maternal parenting stress is the significant contributing factor. All in all, the maternal variables account for 9% of the verbal abuse score.

주제어(Key Words): 언어적 학대(verbal abuse),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I. 서론

인류와 더불어 모든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아동학대는 가정 안에 은폐되어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확한 조사가 어려울 뿐 아니라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학대 아동에 대한 여러 보고에 따르면 학대받은 아동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의 정도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아동학대에 관한 개념규정이나 유형 및 범주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어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연구에 많은 걸림돌이 되어왔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개념정의나 유형 등에 관한 아동복지법의 개정(2000)은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나 실질적인 학대아동보호에 다소나마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꽤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가출 아동, 내원 아동 등 이미 문제 아동으로 취급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김혜영, 1990; 주영희, 1984), 학대유형 및 학대정도 등에 관한 실태파악이나 소아과적, 외과적 수준의 임상적 증례 보고(김광일, 1989; 안동현, 홍강의, 1987)에만 중점을 두어왔다. 영역별로는 학대의 구분이 뚜렷한 극단적인 신체적 학대는 많이 연구되었고, 정의를 내리기가 모호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언어적 학대를 포함한 정서적 학대 영역은 거의 연구되어 있지 않다(Creighton, 1988; Pagelow, 1984). 이에 대해 고성혜(1992)는 정서적 학대의 결과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즉시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그 중요성과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연구되어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정서적 학대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진영(1992) 역시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실태 및 영향을 보고한 연구에서 우리가 흔히 학대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언어적 학대 및 방임은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보다도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언어적 학대임을 밝히고 있다. Ney(1987) 또한 언어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보다 아동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적 학대는 아동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으며, 관련문헌들은 '공격적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협성에 대해 많은 경고를 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언어적 학대는 가정 이외에 학교, 사회조직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지속적인 언어적 학대는 아동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먼저 아동 양육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어머니에 대한 언어적 학대 연구가 보다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지금까지의 대다수 연구는 요보호 아동이나 학대받은 아동들의 임상적 증례에 관한 것이므로 우리 사회의 일반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알게 모르게 행해지고 있는 언어적 학대를 포함한 정서적 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혜련, 1994; 연진영, 1992)가 어느 정도 수행되어왔으나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언어적 학대를 설명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관련변인 중에서도 아동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므로 어머니에 의한 언어적 학대를 설명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어머니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어머니는 아동의 기질과 행동특성, 어머니 자신의 특성으로 인해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정서·행동발달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서소희, 1994). 또한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기간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어머니로서의 모성경험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고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쳐 가정 분위기를 어렵게 만든다(박해미, 1994). 이러한 부정적인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부정적이고 적대적일 뿐 아니라 더 많은 명령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주미, 1992). 또한 아동양육에 있어 어머니가 느끼는 무력감과 스트레스

는 어머니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며 아동에 대한 언어적 학대를 높게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학대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아동학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Gil, 1970; Gelles, 1973)들은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언어적 학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리라 예측해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함께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 관련변인들을 규명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여겨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 및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변인을 설정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언어적 학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가정에서 무심코 자행되는 어머니에 의한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 언어적으로 학대를 받음으로써 상처를 받는 아동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언어적 학대는 어떠한 차이가 나는가?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라 언어적 학대는 어떠한 차이가 나는가?
3. 언어적 학대에 대한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양육스트레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고찰

1. 어머니의 연령 및 교육수준과 언어적 학대

아동학대의 개념을 규정할 때 Kempe와 Helfer(1974) 등이 주축을 이루는 임상의학 분야에서는 신체적 학대만을 아동학대로 보고 있지만 비신체적

학대까지 고려하고 있는 Straus(1991)에 의하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고통을 야기시키는 의사소통, 혹은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인 언어적/상징적 공격이 아동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여 정서적 학대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Claussen와 Crittenden(1991), Kinard(1979) 등도 비신체적 학대의 위대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비신체적 학대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신체적 학대아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아 역시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하여 아동학대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학대에 관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연진영(1992)이 아동학대에 관한 정의에서 언어적 학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허남순(1993)도 정신적 학대의 범주 안에 폭언을 포함시키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언어적 학대 개념에 접근했다고 볼 수 있는 고성혜(1992) 역시 정서적 학대 영역에 언어적 학대를 포함하면서 언어적 학대를 5가지 하위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부모의 불행원인을 자녀에게 돌리는 말로서 '원망적 언어'와 불안감 조성,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위협적 언어', 굴욕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비아냥거림의 '경멸적 언어', 그리고 아동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부감을 표출하는 '거부적 언어', 극단적인 적대감을 표출하는 '적대적 언어'로 분류하고 있다.

대다수의 연구들이 전반적인 아동학대에 관하여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하는 언어적 학대에 관한 선행연구가 매우 제한적임을 밝히고 따라서 포괄적 학대유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 학대의 발생원인에 대한 시각은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정신병리학적 접근을 지지하는 Kempe와 Helfer(1974) 등은 부모의 정서상태, 과거의 경력, 성격 등을 중요한 변인으로 들고 있고, 가정의 여러 특성과 이를 둘러싼 사회구조 및 문화적 여러 측면이 아동학대와 관련이 된다고 보고 있는 사회심리적 접근을 지지하는 Gil(1971)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실업, 무직, 부모의 양육방식을 중요한 변인으로 들고 있으며 Gil(1970)은 부모요인으로 연령, 성, 교육수준, 취

업유무, 양육경험 등을, Gelles(1973)는 연령, 성,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 생태학적 접근에서는 아동학대는 아동, 부모, 가족, 환경의 다요인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에 있어 부모는 모든 접근에서 의미 있는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부모의 연령 및 교육수준과 아동 학대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의 연령은 낮으며, 20-30세에 집중되어 있으며(Faller, 1981; Kinard, 1979; Leventhal, 1981) 나이가 적은 어머니들이 나이든 어머니보다 자녀를 더 학대한다는 보고가 있다(Mussen, Conger, Kagan, & Huston, 1984).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아동학대의 실태를 보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다(김혜영, 1989; 신영화, 1986; 주영희, 1984; Gil, 1971). 김광일과 고복자(1987)도 고학력을 요하는 직업을 가진 부모보다도 그렇지 않은 직업을 가진 부모에게서 학대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Pelton(1978)에 의하면 학대하는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체로 낮았는데 어머니의 65%, 아버지의 55.5%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 특히 아동양육의 경험부족 즉 미숙한 부모, 아동발달단계에 포함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부모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고학력을 요하는 직업을 가진 부모보다도 그렇지 않은 직업을 가진 부모에게서 학대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주영희(1984)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교육 정도는 일반적으로 학대하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았고, Ory와 Earp(1981)는 학대받는 아동과 받지 않는 아동의 가정을 비교 분석하여 본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아동학대에 관해 부모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으며 언어적 학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부모의 스트레스가 언어적 학대를 포함한 제 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한 연구들을 토대로 고찰하고자 한다.

Belsky(1984)는 스트레스 상황적 요소가 양육의 주요 결정 요소이며, 직접-간접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부정적이고 적대적일 뿐 아니라 더 많은 명령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주미, 1992). Gelles(1973)는 좌절과 스트레스를 주요한 아동학대의 변인으로 보았는데 다양한 상황적 스트레스가 학대와 관련되거나 학대하는 사건으로 유도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상황적 스트레스는 가족의 사회적 상황의 최근 변화 중 나쁜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많은 상황적 스트레스가 경제적인 것이며, 부모의 실직은 위기를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이혼, 별거로 인한 과중한 역할 등은 상황적인 스트레스로 아동학대에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Faller, 1981). 또한 아동학대의 주요한 요인으로 경제적 빈곤을 들 수 있는데 특별히 가정의 재정적 어려움이 아동학대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Gil, 1971; Gelles, 1980). 김광일, 고복자(1987)에 의하면 부모의 직업에서 보면 아버지가 실직한 경우와 부모의 직업이 학력이 요구되지 않는 노동인 경우가 학대를 많이 한다고 하였다. 결국 하류계층은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기통제에 필요한 심리기제를 약화시켜 좌절감을 가져오게 하여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동학대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다양한 상황적 스트레스 외에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교육과 관련된 입시경쟁이 부모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즉, 학교공부와 관련하여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구조, 사회풍토, 부모들의 교육열로 인하여 부모들은 재정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학력을 사회적 신분상승의 가

장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학력 위주의 사회풍토의 반영으로서 아동학대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가족관계에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부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그들은 자기의 세력의 부족을 보상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 세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아동을 학대하게 된다. 아동이 어릴수록 무력하여 어른에게 항거할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부부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아동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Helper(1973)는 부모의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러울 때 불만의 해소과정에서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부부관계에서 부부가 상호 평등관계가 아닌 한쪽이 지배적인 관계일 때 아동학대를 유발하게 된다. 가족갈등적인 측면에서 보면 Justice와 Duncan(1976)은 아동학대 부모와 일반 부모가 경험한 생활사건의 양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고 부모의 스트레스가 아동학대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스트레스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생활사건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개인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차이가 생활사건과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재변수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Faller(1981)는 아동학대는 가족이 경험한 스트레스 요인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촉진적 스트레스는 부모의 성격특성이나 아동의 문제행동이 아동학대를 촉발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로부터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양육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예측해보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언어적 학대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보아 이들의 관계나 언어적 학대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초등학교 5, 6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59)

변인	구분	N (%)
성별	남아	296(44.9)
	여아	363(55.1)
학년	초등학교 5학년	147(22.3)
	초등학교 6학년	161(24.4)
	중학교 1학년	209(31.7)
	중학교 2학년	142(21.5)
어머니의 연령	만37세 이하	198(30.4)
	만38-40세	237(36.3)
	만41세 이상	217(33.3)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213(32.8)
	고등학교 졸업	317(48.8)
	대학교 졸업 이상	120(18.5)

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그들의 어머니들로 총 659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질문지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그리고 완성된 질문지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에 재학중인 690명과 그들의 어머니에게 2001년 9월 6일부터 11일 사이에 배부, 회수하였다. 이중 응답이 누락된 자료나 불성실하게 답한 자료를 제외한 총 659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 도구

1)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번안하여 사용한 신숙재(1997)의 양육스트레스 30문항을 사용하였다. 실제로 요인들이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수를 3개로 지정한 후에 주성분 분석과 오블리민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이 확인되었고, 각 요인의 고유치는 요인 1이 5.12, 요인 2가 1.86, 요인 3이 1.36이었으며, 각각의 설명되는 변량은 25.58%, 9.31%, 6.79%로 나타났다. 이 3개 요인의 문항내용에 기초하여 요인 1은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요인 2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그리고 요인 3은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라고 명명하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8문항)가 .82,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9문항)가 .70, 그리고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3문항)가 .67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언어적 학대

언어적 학대의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언어적 학대에 관한 제 연구(고성혜, 1992; 신영화, 1986)를 토대로 연진영(1992)이 제작한 15개 문항 중 지나치게 표현한 부분(예: 너 같은 것은 죽어도 싸다, 때려 죽여버리겠다 등)을 배제시킨 8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동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했을 경우에, 혹은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아동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으로 부모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유형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아동으로 하여금 제시된 예제에서 나타난 말들을 지난 일년동안 들은 경험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범주는 1년에 '한번도 없었다(없다)', '드물게 있었다(1년에 2-3번)', '가끔 있었다(1달에 2-3번)', '자주 있었다(1주일에 1-2번)'로 나누어 1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주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언어적 학대를 경험하는 수준이 높은 것이다.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양육스트레스 검사도구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

여 분산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언어적 학대에 관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언어적 학대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언어적 학대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 언어적 학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는 만 37세 이하인 어머니 집단이 만 38세 이상인 어머니 집단보다 언어적 학대를 약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Faller, 1981; Kinard, 1979; Leventhal, 1981; Mussen, Conger, Kagan & Huston, 1984)와 일치한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p < .05$),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어머니 집단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어머니 집단보다 언어적 학대를 약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김광일, 고복자, 1987; 김혜영, 1990; 신영화, 1986; 주영희, 1984; Gil, 1971; Ory & Earp, 1981; Pelton, 1978)과 일치한다.

<표 2>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언어적 학대 (N=659)

변인	구분	언어적 학대		
		M	D	F
어머니 연령	만 37세 이하	13.31	A	
	만 38 - 40세	12.31	B	3.38*
	만 41세 이상	12.23	B	
어머니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12.85	A	
	고등학교 졸업	12.80	A	3.51*
	대학교 졸업 이상	11.56	B	

D: Duncan's * $p < .05$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언어적 학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라 언어적 학대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따른 언어적 학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는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상집단이 중집단 이하보다 언어적 학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 따른 언어적 학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중집단 이상이 하집단 보다 언어적 학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따른 언어적 학대 또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는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상집단이 중집단 이하보다 언어적 학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언어적 학대에 대한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및 양육스트레스의 영향

언어적 학대에 대한 제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제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 3>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언어적 학대의 차이 (N=659)

변인	구분	언어적 학대		
		M	D	F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상	13.93	A	14.17***
	중	11.92	B	
	하	11.87	B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상	13.59	A	10.96***
	중	12.76	A	
	하	11.53	B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상	13.51	A	8.74***
	중	12.15	B	
	하	11.84	B	

D: Duncan's *** $p < .001$
 집단분류 : 하<M-SD, M-SD<중<M+SD, M+SD<상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언어적 학대와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및 양육스트레스간에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r = .22, P < .01$),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r = .21, P < .01$),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r = .20, P < .01$), 어머니의 연령($r = -.09, P < .05$), 어머니의 교육수준($r = -.08, P < .05$) 순으로 언어적 학대와 관련이 있었다.

언어적 학대에 대한 제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및 양육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2.19), 잔차간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 제시한 바대로 언어적 학대에 양육스트

<표 4> 언어적 학대와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1	2	3	4	5
1. 어머니의 연령					
2. 어머니의 교육수준	-.07				
3.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03	-.10**			
4.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05	-.07	.44**		
5.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05	-.17**	.43**	.42**	
6. 언어적 학대	-.09*	-.08*	.21**	.20**	.22**

* $p < .05$ ** $p < .01$

<표 5> 언어적 학대에 대한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양육스트레스의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전체
언어적 학대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0.10	.12*	F=11.12*** R ² =.09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0.10	.11*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0.20	.12**	
	어머니의 연령	-0.32	.05	
	어머니의 교육수준	-0.43	.07	

* $p < .05$ ** $p < .01$ *** $p < .001$

레스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beta=.12$, $p<.01$),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beta=.12$, $p<.05$),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beta=.11$, $p<.0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순으로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연령이나 교육수준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변인들의 언어적 학대에 대한 전체적 설명력은 9%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일반가정에서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가 어머니의 연령 및 교육수준, 양육스트레스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언어적 학대에 대한 어머니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아동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신체적 학대 못지 않게 아동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언어적 학대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두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언어적 학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연령이 만 37세 이하인 그룹이 그 이상의 연령그룹에 비해 언어적 학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적은 어머니들이 많은 어머니들보다 자녀를 더 학대한다고 보고한 연구와 일치한다(Mussen, Conger, Kagan, & Huston, 1984). 물론 선행연구들의 조사대상자 연령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와 비교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어머니의 연령은 자녀 양육의 직접, 간접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그 자녀에게 맞는 적절한 상호작용방법을 알고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이유로 자녀와의 갈등이 언어적 학대로 이어지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언어적 학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보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일 때 언어적 학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동 양육시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언어적 학대를 더욱 많이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융통성 있고 기술적이므로(조병은 외, 1995),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보다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상황이 덜 발생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나고(최정미, 1999), 자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으며(Baumrind, 1967) 자율성을 더 많이 인정해주고, 협동적인 관계를 맺으며(Schaefer & Bayley, 1969), 자녀에게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고 호기심을 격려하고 실제적으로 자녀를 지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므로(이원영, 1983) 언어적 학대를 덜 한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언어적 학대는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경험하는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부모역할을 잘 하기가 어려워지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신숙재, 1997) 언어적 학대를 더욱 많이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양육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한 과정이 자녀에 대한 언어적 학대로 이어지고,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는 결국은 아동의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 및 강박행동과 같은 정서적 부적응 행동(김혜련, 1994)이나 반사회적 행동(연진영, 1992)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때,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어

머니의 언어적 학대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적 지원과 남편이나 주위사람들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자녀의 존재는 어머니에게 보람과 만족감을 주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해결해주면서 자녀가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머니의 많은 노력과 댓가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자녀가 기대에 따르지 않을 때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때로는 정보나 방법을 잘 몰라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만약 이런 경우에 주변에서 어머니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머니는 다시 힘을 얻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내면의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좋은 부부관계는 부모가 양육에서 직면하는 스트레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정서적인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Minuchin, 1974) 남편의 부모로서의 협력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언어적 학대에 대한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양육스트레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언어적 학대에는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이 언어적 학대의 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상 받는 스트레스(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혀졌는데 이는 대체로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어떠한 형태로든 자녀를 양육할 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언어적 학대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언어적 학대를 설명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많은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은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였다. 즉 자녀가 공부를 스스로 잘못하고 매사에 어머니의 기대만큼 잘 따르지 않아 힘이 들 때 언어

적 학대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으로 자녀의 학습이나 공부에 대한 기대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부담감이 자녀에게 언어적 학대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중학생 어머니의 학습에 대한 부담감은 고등학생 어머니 못지 않게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으리라 여겨진다. 학교 공부와 관련하여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구조, 사회풍토, 부모들의 교육열로 인하여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언어적 학대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좋은 대학에 자녀를 입학시키는 것은 훌륭한 어머니를 기뻐하는 외형적인 잣대이며,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한 여성으로서,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했는가에 대한 중요한 평가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머니로 하여금 양육스트레스 중 학습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더욱 높였을 것이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에게 언어적 학대를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결국 언어적 학대를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 사회 전반에 걸친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자녀의 기질이 까다롭다고 인지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며(김기현, 조복희, 2000; Mash & Johnston, 1990; Webster-Stratton, 1990), 부모나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스트레스 지각에 더욱 중요하다(고성혜, 1994; Levitt, Weber, & Clark, 1986)고 하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자녀의 기질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어

머니와 자녀의 기질이 조화로울수록 어머니가 자녀에게 애정적 태도를 보인다고 한 최영희(1993)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자녀가 어머니의 기대대로 잘 따르지 않아 힘이 들고, 자녀와의 사이가 가깝지 않다고 여길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며 이것의 영향을 받아 언어적 학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에 의한 언어적 학대의 영향력 있는 변인임이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의한 언어적 학대만을 다루었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아버지 변인도 포함시켜 연구를 확대할 것과 언어적 학대만이 아닌 포괄적인 학대에 관한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학대받는 아동을 도와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들을 어머니에 의한 언어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어머니들이 습관적으로 자녀에게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성향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모를 교육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고성혜(1992). 아동학대개념 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 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 박사논문.
-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 21-37.
- 김광일(1989). 가정폭력. 서울: 탐구당
- 김광일, 고복자(1987). 아동구타의 발생을 조사. 정신건강연구, 6, 66-81.
- 김기현, 조복희(2000). 맞벌이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1(4), 35-50.
- 김혜련(1994).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숙명여대 석사논문.
- 김혜영(1990). 아동학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가출아동과 일반아동 간의 비교. 이화여대 석사논문
- 박해미(1994). 자녀 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서소희(1994). 자폐아 연령군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조사연구. 대구대 석사논문.
- 송주미(1992). 양육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자녀행동 지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석사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박사논문
- 신영화(1986).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인구 및 가정환경에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안동현, 홍강의(1987). 한국에서의 아동구타 현황. 정신건강연구, 6, 53-65.
- 연진영(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 조병은 외 8인(1995). 3세대를 통해서 본 모-자녀 애착관계와 사회적 능력: 전생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86-93.
- 주영희(1984). 가출아동을 통한 학대조사연구. 사회복지, 80, 71-133.
- 최영희(1993). 기질과 환경간의 "조화로운 합치" 모델 검증 연구(I) : 조화로운 합치정도와 양육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 217-226.
- 최정미(1999).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 결혼적용, 애정적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전남대 박사논문.
- 허남순(1993).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아동복지학, 23-45.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 Manual Pediatric psych.
- Baumrind, D. (1967). Childcare practice, antecedent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345-348.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Claussen, A.H. & Crittenden, P.M. (1991). Physical and Psychological Maltreatment : Relations Among Types of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15, 5-18.
- Creighton, S.T. (1988). Quantitative assessment of child abuse. In Child abuse, P. Maher(ed.), Oxford : Basil Blackwell.
- Faller, K.C. (1981). *Social Work with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New York: The Free press.
- Gelles, R.J. (1973). Child abuse as psychopathology : An sociological critique and reformulation. *American Journal Orthopsychiatry*, 43(4), 611-621.
- Gelles, R.J. (1980). Violence in the family: A Review of research in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 Gil, D.G. (1970). *Violence against children: Physical child abuse in United Stat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il, D.G. (1971). Violence agains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637-648.
- Helper, R.E. (1973). The Etiology of Child Abuse, *Pediatrics*, 5.
- Justic, B. & Duncan, D.F. (1976). Life Crisis as a Precursor to Child Abuse, *Public Health Report*, 91(2).
- Kempe, C.H. & Helfer, R.E. (1974). *Helping the battered Child*,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inard, E.M. (1979).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abuse for the child. *Journal of Social Issues* 35(2), 82-100.
- Leventhal, J.H. (1981). Risk factors for child abuse, methodologic standards in case-control studies. *Pediatrics*, 68, 684-690.
- Levitt, M.J., Weber, R.A., & Clark, M.C. (1986). Social network relationships as sources of maternal support and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10-316.
- Mash, E. J. & Johnston, C. (1990). Determinants of parenting stress : illustrations from families of hyperactive children and families of physic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 313-328.
- Minuchin, S. (1974). *Family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ussen, P., Conger, J., Kagan, J. & Huston, A. (198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6th ed.. Harper & Row publishers, New York.
- Ney, P.G. (1987). Does verbal abuse leave deeper scars: A study of children and parent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32, 371-378.
- Ory, M.G. & Earp, J.A.L (1981). Child Maltreatment and the use of social services, *Public Health Reports*, 96(3).
- Pagelow, M.D. (1984). *Family Violence*. New York : Praeger.
- Pelton, L.H. (1978). Child Abuse and Neglect and Neglect: The Myth of Classlessnes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8(4).
- Schaefer, E. S., & Bayley, N.(1969). Maternal behavior and personality development, In G. R. Medinnus(ed.), *Reading in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 N.Y. : John Wiley & Sons, Inc.
- Straus, M.A. (1991). Verbal aggression by parents and psychosocial problems of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15, 223-238.
- Webster-Stratton, C. (1990). Stress : A potential disrupter of parent perceptions and family interac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9, 302-312.